

교만하면 패망한다

성경말씀: 눅14:1-24

공생에 마지막 6개월(눅9:51), 하나님의 왕국 선포 최종 사역, 대다수 유대인들의 문제점 적시
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관심,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불통
유대인/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안식일과 십일조 준수, 특히 안식일, 이것만 지키면 만사 OK

안식일 총들(1-6)

1.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음(6:1-5):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2. 병자를 고침(6:6-12),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식일에 선을 해야 한다.
3. 18년 동안 병약함이 영, 몸이 굽은 여인 고침(13:10-17), 안식일이라도 고쳐 주어야 한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할 것 3번(7:36; 11:37, 그리고 오늘 14:1)

1. 여인의 향유 옥합, 2.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맹공격, 3. 바리새인들을 잠잠하게 함
오늘은 수종이 있는 남자(2): 액체가 빠지지 않아 몸이 부어오르는 증세
예수님의 직격탄(3), 그들이 잠잠함(4), 그를 고친 뒤 교훈(5), 다시는 대답하지 못함(6)
율법의 요약(마23:34-39):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11절이 답이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잔치 비유 1(7-11): 교만이 문제이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심(7): 으뜸가는 자리를 탐함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8-10)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의 행태

바리새인들의 문제: 탐욕, 위선, 그리고 명예, 마23:6(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
이들에게는 늘 교만이 따라다닌다(11). “제발 나를 높여 주시오!” 구제, 기도, 금식 등 공치사
자기를 높이는 자

1. 바리새인과 죄인(눅18:9-14): 결국 자기를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면 구원받지 못한다.
2. 제자들(눅22:24-27): 구원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주의 만찬(14-23)
3. 젊은 성도들(벧전5:5-6):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무질서는 용납할 수 없다.

잔치 비유 2(12-14): 초대의 동기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심(12)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지금 온 사람들은 다 부자다. 다시 갚을 수 있다.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부활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바리새인의 의도: 1) 과거에 초대했으니 자기도 함, 2) 후에 자기를 초대하게 하려고, 이것도 위선
예수님 당시의 풍습: 가난하고 병든 자, 여인 초대 No, 예수님은 이것을 타파함

즉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동기가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다(약2:1-4). 재물, 지식, 명예 등으로 사람 판단 No!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유(15)

영이 가난해서 복음에 순종할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영이 가난하였다.
그리하면 구원으로 인도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

잔치 비유 3(15-24)

이야기가 책망으로 이어지자 좌중의 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름(15).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설명

이스라엘의 풍습: 큰 잔치를 열면 두 번 초대한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찬 준비

그 뒤 준비가 되면 그 시각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어 올 것을 정중하게 요청함(17)
초대받은 자들의 변명 1. 땅을 사서 보러 가야 한다(18), 2.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19),

3. 장가들어서 갈 수 없다(20).

모두 거절 사유가 빈약함: 1, 2는 말이 안 됨, 3. 신24:5, 전쟁에 보내지 말고 일을 맡기지 말라. 이에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변명 사유를 알리니(21) 주인이 가난한 자 등 초대하라고 함(21)

자리가 여전히 남았다고 하니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억지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함(23). 결론(24);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

처음 초대받은 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알고 교육을 받은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마23:13, 15)

나중에 초대받은 가난한 자들: 말 그대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마21:31-32)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 산울타리까지 가서 채운다. 이들은 이방인(요10:16)

하나님의 왕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과 구약 성도들(13:28), 대개 핍박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람, 모세(33-38)

한 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노아의 120년 선포

오늘 여기 앉은 우리는 어떠한가?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그분의 선물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가? 형식에 치우쳐서 종교인이 되면 교만하게 된다. 자리, 명예, 교세 다름 건물, 교인 수, 현금 자랑, 미국 같으면 버스 사역 자랑

다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뛰면 패망한다.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시75:6).

처음 초대받은 유대인들의 패망 사례

예수님 처형의 주범들: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치리자들, 서기관들, 장로들(마26:57)

빌라도의 고백(27:24): 그는 의로운 사람, 백성의 대답(25):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유대인들의 패망, 근 2000년 동안 유랑 생활, 천주교 박해, 중세 유럽인들 박해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인종 청소,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은혜로 1948년 5월에 나라 건설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눅13:35)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이 남아 있다(슌13:8-8)

그 뒤 주님의 올리브산 강림(슌14)

우리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자리다툼과 교만 그리고 탐욕, 그 결과 위선자들이 배출된다.

성경의 위선자는 다 종교적 틀을 쓴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은혜로 수용하였는가?

아직도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교만한 것이다. 먼지만도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재판하려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겸손하게 사는가? 품행이 단정한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가?

1. 완전한 성경을 주셨다. 번역하고 알리고 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2. 구원의 복음 바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미디어 선교

구원과 성화, 천주교, 이슬람, 동성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가?

3.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이다. 우리는 다 죽고 만다.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기다 죽어야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가능한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이들 정신 및 신앙 교육,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교회 건축도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 50세 이상의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10-40대까지

그러므로 여기 속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보상을 빼앗긴다.